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동향	02
2. 국외 항만 동향	09
3. 품목 및 산업 동향	14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1차년도 운영결과 공개
- 🌊 광양항, 2-2단계 컨부두 노후 컨테이너 크레인 교체 완료
- 🌊 평택·당진항, 평택시-당진시 간 매립지 경계분쟁에서 경기도 승소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 중국 주요 컨테이너 항만, 적체 현상 심화
- 🌊 미국 LA항-롱비치항의 적체 현상, 봄까지 지속 전망
- 🌊 모로코, 지중해 화물 경쟁에서 스페인 항만 추월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 시멘트, '20년 건설수주 전년 대비 16.9% 증가한 194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
- 🌊 모래, '21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감소세 기록
- 🌊 목재, 산림청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발표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BPA, '2020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발표¹⁾

-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해운항만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함
- 해당 보고서는 해운항만산업 및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7년 처음 추진되었으며 '19년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11월까지 비대면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경영실적 및 이용현황 등은 '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됨
- '19년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해운항만산업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054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부산과 창원 소재 사업체는 7,347개(73.1%)로 나타남
- 지역별로 부산시가 66.3%, 창원시가 6.8%, 기타 지역이 26.9%임
- 해당 사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132,134명으로 이 중 74.7%(98,701명)가 해운항만산업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부산과 창원 소재 사업체 종사자수는 80,117명으로 이 중 해운항만산업 분야 관련 종사자 수는 69,090명(86.2%)임
- 또한 해당 사업체의 매출액 중 해운항만산업 분야와 관련한 매출액은 31조 1,6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 역시 1조 8,3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함
- 그러나 경영실적 개선 정도에 대한 설문 응답에서는 49.7%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설문조사 시점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매년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계 전체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힘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1.26.),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dx=26122&mCode=MN1445>(2021.02.16. 검색)

2) 인천항

①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성공적으로 완료²⁾

- 인천항만공사는 선박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의 1차년도 운영결과를 공개하고 2월 18일까지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를 접수받을 예정
- 1차 검증결과에 대해 접수된 이의내용을 반영한 2차 검증결과를 관련 선사와 2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유한 후, 상반기 내로 항비 감면액을 지급할 예정임
- 공사에 따르면, '19년 12월부터 '20년 12월까지 13개월간 국내외 33개 선사, 1,444척의 선박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며, 참여율은 30.9%, 참여 선박의 프로그램 준수율은 96%로 나타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 선사들이 적극 동참한 것으로 나타남

2)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2.14.),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7920&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1.02.14. 검색)

- 검증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와 관련 사항은 향후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홍보관 알림마당의 '새소식 메뉴'의 '2020년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신청 결과 알람'에 공지할 예정임
-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사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된 2차년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2-2단계 컨부두, 노후 하역장비 설비 개선³⁾

🌊 노후화 설비 교체로 생산성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기대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광양항 2-2단계 부두의 컨테이너 크레인 노후 설비를 교체 완료했다고 발표함
- YGPA는 하역장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후 설비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20년 6월부터 8개월간 총 38억 원을 투입함
- 컨테이너 크레인 6기의 드라이브를 운영사와 협의하여 1기씩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등 운영 손실을 최소화함
- YGPA는 이번 설비 교체작업을 통해 부두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음

② 여수·광양항 '21년 총 물동량 2억 9,500만 톤 처리 목표⁴⁾

🌊 수출입 물동량 2억 2,500만 톤, 컨테이너 235만 TEU 처리 목표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올해 총 물동량 목표를 전년 2억 7,500만 톤보다 7.3% 증가한 2억 9,500만 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힘
- 세계 경기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출입 1위 항만인 광양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 감소 위기대응 관리 및 선사별 맞춤형 마케팅 등에 노력할 계획임
- 또한 광양만권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관련 화물 등 지역산업에 대한 항만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물류 서비스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둘 계획임
- YGPA는 컨테이너부두 3-2단계에 완전 무인 자동화부두 테스트베드 구축, 배후부지 고정화물 확대, 컨테이너부두 통합 관련 운영체계 개선 등 항만 생산성 제고를 통해 '22년 총 물동량 3억 톤 이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3)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2.09.),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848&category= (2021.02.18. 검색)

4)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1.28.),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842&category= (2021.02.18.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현대글로벌비스와 베트남 물류사업 진출을 위한 MOU 체결⁵⁾

📍 울산항만공사는 현대글로벌비스와 베트남에 3만㎡ 규모의 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본 사업은 울산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첫 해외사업으로 글로벌 SCM기업인 현대글로벌비스와 협업하여 베트남 호치민 인근 항만 배후지에 물류창고 건립 및 운영을 추진할 예정임
-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올해 안으로 현지 시장조사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물류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취급 화물은 자동차부품, 섬유, 전자부품, 콜드체인 등을 계획 중에 있음
- 또한,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정부의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단가로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현대글로벌비스는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동남아 지역 중 가장 먼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항만물류 분야 상생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짐

② 효성중공업, 울산에 세계 최대 액화수소공장 건립 추진⁶⁾

📍 효성중공업은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전문 화학기업인 린데그룹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

- 이번 합작투자는 지난해 4월 효성중공업과 린데그룹이 액화수소 생산, 운송, 충전시설 설치 등 수소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판매법인과 생산법인을 각각 설립할 계획임
- 향후 합작법인인 린데하이드로젠은 '23년 초까지 효성그룹 소유의 울산 용연공장 부지에 1만 3천톤 규모의 액화수소공장을 건설하고 수소공장 완공 시점에 맞춰 전국 120곳에 수소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 생산 공장에서는 연 10만 대의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수소를 생산하고 매년 13만 톤의 배기가스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5)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1.14.)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2001(2021.02.08. 검색)

6)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뉴스(2021.02.05.)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2021.02.08. 검색)



[illegible]

6) 포항항

①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위원회 개최 연기⁸⁾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0년 2월 3일 예정이었던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위원회 개최를 2월 19일 이후로 연기할 계획임

- 청은 공모에 응한 2개 선사 중 (주)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 제주호에 대해 공모에 적절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1월 27일 공모신청을 반려한 바 있음
- 이에 (주)에이치해운에서는 포항해양수산청의 공모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함
- 대구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2월 17일로 정하였으며, 신청사건의 심리 및 판단을 위하여 (주)에이치해운에 대한 공모 신청 반려 처분 효력을 2월 1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포항해양수산청에서는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결정된 2월 19일 이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

8)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2.03.), <https://pohang.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8613&boardKey=7&menuKey=435&currentPageNo=1>(2021.02.15. 검색)

7) 마산항

① 모래부두 확장에 정치권 및 주민 반대로 논란⁹⁾

☞ 최근 마산항 가포물양장 개량공사 인가로 모래부두 매립 공사 시행허가가 고시되어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 지난해 4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 반영 요청으로 이미 주민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사업 승인 인가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가포 모래부두 설치 예정지는 가포 신항과 수변공원의 중간지점으로 평소 낚시와 캠핑을 즐기는 이용자가 많고 인근에 차량 선적부두와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모래부두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인근 주민자치회의 의견임
- 또한, 모래부두는 수질오염과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과 어업피해 등이 우려되어 인근 주민들과 국립마산병원 환자들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 계획이 지난 '13년부터 이어져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지역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주민 반발이 크기에 전체 의견을 접수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함

9) 경남도민일보(2021.01.19.),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42329>(2021.02.16. 검색)



8) 동해·묵호항

① 오염 퇴적물 정화사업 추진¹⁰⁾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1년도에 해양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실시 설계'를 추진할 예정

- 동해·묵호항은 반폐쇄형 항만으로 해류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수질의 자연 정화능력이 낮으며, 육상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유기물까지 더해져 복합오염이 발생하고 있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해항에는 약 26만 5천 m³, 묵호항은 1만 4천 m³의 오염퇴적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21년도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오염현황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정화·복원 방법, 사업기간 등이 검토됨

☀ 오염 퇴적물 정화 사업을 통해 동해·묵호항의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관광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음

10)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2.02.), <https://donghae.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7818&boardKey=7&menuKey=428&currentPageNo=1>(2021.02.26. 검색)

9) 목포항

① 부두운영사(TOC) 운영실태 일제 점검 실시¹¹⁾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3월 2일 목포항에 위치한 부두운영사의 부두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함

- 부두운영사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이며, 목포항에는 CJ대한통운(주), 대불부두(주), 목포국제자동차부두(주), 세방(주) 등 4개가 있음
- 일제 점검을 통해 임대시설의 적정 운용 여부를 확인하고 가설건축물 관리 및 임대시설을 비롯한 부속시설의 유지보수 실적 등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으며, 특히 하역작업 시 부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함

② 설 연휴기간, 전남 서·남해안 여객선 6만 8천 명 이용¹²⁾

☀ 설 연휴기간인 2월 10일~14일 사이 전남 서·남해안 지역 여객선 이용객은 전년(10만 4천 명) 대비 66% 수준인 6만 8천 명을 기록함

- 차량 수송 실적은 전년(2만 7천 대) 대비 82% 수준인 2만 2천 대를 기록함
- 목포지역 주요 항로별로는 목포~제주 4만 6천 명(-55%), 목포~하의·상태 6만 4천 명(-31%), 목포~비금·도초 5만 5천 명(-32%), 남강~가산 4만 3천 명(-14%), 팽목~창유·서거차 3만 6천 명(-18%)을 기록함
- 완도지역 주요 항로별로는 땅끝~산양 1만 1천 명(-41%), 화흥포~소안 7,600명(-30%), 당목~일정 5만 5천 명(-37%), 완도~청산 5만 1천 명(-27%)을 기록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향 방문 자제 분위기와 신안군 지도와 임자도를 연결하는 임자대교의 임시개통 영향으로 여객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1.29.),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31010>(2021.02.17. 검색)

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1.26.),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30992>(2021.01.28. 검색)

10) 군산항

① 군산항, '21년부터 항만국통제 시행 예정¹³⁾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1년부터 외국적선박의 안전점검을 위한 항만국통제(PSC) 시행계획 수립을 밝힘

- 항만국통제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하여 국제기준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임
- '20년 군산항에 입항한 외국적선박은 총 61척으로 다수 결함(10.0%, 6척)을 받은 선박은 재점검을 실시하고 중대결함(3.3%, 2척)이 있는 선박들은 출항 정지 처분을 받았음
- 출항이 정지된 선박들은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 선박, 선령 20년 이상의 고령 선박,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된 선박들임

☞ '21년에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의 국적, 선급, 선령 등을 고려해 선박연료유황 함유량(0.5%)이 초과되는 기준미달 선박 등이 입항하지 못하도록 고위험 선박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13)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2.10.),
<https://gunsan.mof.go.kr/ko/board.do?menuidx=1115&bbsidx=31091>
 (2021.02.26.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주요 컨테이너 항만 적체 심화¹⁴⁾

- 중국 주요 컨테이너 항만들이 춘절(2월 11~17일)을 앞두고 화물 수요 급증 및 코로나 19에 따른 항만 노동력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대부분 중국 내 모든 항만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선전항(옌텐), 닝보-저우산항, 상하이항, 다롄항의 적체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중국 내 공장들이 물품 출하 일정을 예년 대비 앞당겨 진행하면서 이른 춘절 혼잡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용 컨테이너의 상당 부분이 선박 도착 예정 시간보다 며칠 전에 항만에 인도되면서 컨테이너 야드 운영과 항만 교통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
- 특히 옌텐국제컨테이너터미널(YICT)은 약 30만 개에 가까운 컨테이너가 항만에 적재되어 적재밀도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컨테이너 보관 기간 역시 기존 3~5일에서 9.5일로 늘어났다고 밝힘¹⁵⁾
- 해당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대부분 항만은 연휴기간 동안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현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리를 지키도록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

14) Joc.com(2021.02.10.), https://www.joc.com/port-news/international-ports/china-port-congestion-flares-amid-pre-cny-rush_20210210.html(2021.02.17. 검색)

15) Hellenicshipping News(2021.02.10.),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containers-line-up-at-chinas-sea-ports-showing-foreign-consumers-appetite-for-chinese-goods/>(2021.02.17. 검색)

2) 아시아

① 싱가포르 항만공사(MPA), 프랑스 Total Marine Fuels에 세번째 LNG bunker 라이선스 발급¹⁶⁾

- bunker 라이선스는 '22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유지되며, Total Marine Fuels는 기존 라이선스 기업인 FuelLNG와 Pavilion Energy 뒤를 이어 합류하게 됨
- Total Marine Fuels은 싱가포르항의 LNG bunker 라이선스를 획득함에 따라 전 세계의 선도적인 LNG bunker 업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세계 최대 bunker 항만인 싱가포르항은 LNG 연료 재급유능력(refueling capabilities) 구축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100만 톤의 공급량을 보유하고 있음

16) Seatrade Maritime News(2021.02.26.), <https://www.seatrade-maritime.com/bunkering/singapore-grants-third-lng-bunkering-license-total-marine-fuels>(2021.02.26. 검색)



② '21년 1월 일본발 미국 수출 컨테이너 실적 5.3% 증가¹⁷⁾

☞ '21년 1월 일본의 미국향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한 4만 9,749TEU를 기록함

- 미국의 데이터 분석기관인 데카르트 데이터마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직수출되는 물동량은 3만 7,355TEU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함
- 그 외 1만 2,394TEU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에서 환적 운송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한 수치임

☞ 한편, '20년 12월 기준 미국발 일본향 수입 컨테이너는 4만 7,691TEU로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 '20년 누적 물동량은 68만 2,053TEU로 전년 대비 8.4% 감소함

- 항만별로 살펴보면 도쿄항이 24만 1,293TEU(전년 대비 -5.5%), 고베항 15만 1,987TEU(전년 대비 +0.8%), 요코하마항 7만 4,098TEU(전년 대비 -14.8%), 나고야항 6만 2,419TEU(전년 대비 -10.6%) 등임

③ 스리랑카, 인도와의 항만 공동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일방적 취소¹⁸⁾

☞ 스리랑카 라자팍사 행정부는 지난 '19년에 체결된 항만 운영 및 개발 프로젝트를 취소한다고 인도에 통보함

- 스리랑카 내각은 인도, 일본과 공동으로 콜롬보 동부컨테이너터미널을 개발하려는 협정을 맺었으나 지난 2월 1일에 스리랑카가 100% 소유하는 터미널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계약 파기를 각국에 통보하였음
- 지난 공동 개발 협정 이후 스리랑카 항만 노동자들은 자국의 항만이 타국에 넘어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러한 반대 압력이 콜롬보 항만 개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게 만든 것으로 전해져 향후 인도와 스리랑카의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지난 1월 콜롬보 항만 계약 관련 우려가 제기되어 인도 외무부 장관이 스리랑카를 방문하였으며 과거에 맺어진 협정이 계약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그러나 이후 스리랑카 소수 민족 관련 분쟁과 인도 어부들의 사망 사건 등이 최근 이슈로 부상되며 인도와 스리랑카의 외교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여옴
- 이번 계약 파기 문제가 인도 국내 정치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과 인도 두 경제 대국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다만 스리랑카 정부는 기존의 동부컨테이너터미널 대신 외국 기업들을 위해 콜롬보 항만 서쪽에 위치한 또 다른 터미널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17) JIFFA(2021.02.24.), <https://www.jiffa.or.jp/en/news/entry-6940.html> (2021.02.24. 검색)

18) The Diplomat(2021.02.03.), <https://thediplomat.com/2021/02/sri-lanka-cancels-port-deal-with-india-amid-creeping-signs-of-deterioration-in-relations/> (2021.02.16. 검색)

3) 미주

① LA-롱비치항의 항만 적체, 봄까지 지속 전망¹⁹⁾

☀ 항만 혼잡이 지속되고 있는 LA항과 롱비치항의 생산성이 1월부터 다소 개선되었으나 혼잡은 늦은 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 '21년 1월, 터미널을 이용하는 트럭의 평균 방문 시간은 88분으로 '20년 12월(93분)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20년 6월의 58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터미널 운영사측은 봄철 내내 기록적인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적체된 컨테이너는 4~6월 중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는 항만 혼잡 완화를 위해 항만 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12월 이후, 롱비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며, 장비를 운영할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여 터미널 체류시간이 증가하고 병목현상이 발생함
- 태평양 상선 협회(PMSA-Pacific Merchant Shipping Association)에 따르면, 두 항만 12개 터미널에서의 컨테이너 평균 체류시간은 '20년 상반기 대비 2.5배 증가한 평균 4.99일('20년 12월)임

LA-롱비치항 트럭 평균 방문 시간 추이

LA-LB truck turns slip from December peak

Average truck turn times across all marine terminal in the Los Angeles-Long Beach port complex



Source: Harbor Trucking Association Truck Mobility Data

©2021 IHS Markit

19) JOC(2021.02.05.), https://www.joc.com/port-news/us-ports/port-los-angeles/la-lb-congestion-clear-late-spring-terminal-operators_20210205.html(2021.02.17. 검색)

자료: JOC(2021.02.05.), https://www.joc.com/port-news/us-ports/port-los-angeles/la-lb-congestion-clear-late-spring-terminal-operators_20210205.html(2021.02.17. 검색)



4) 유럽

① 로테르담항, 부두 확장 공사로 연간 컨테이너 하역능력 400만 TEU 증가 예상²⁰⁾

- 📌 로테르담항은 연간 컨테이너 처리물량의 28%에 해당되는 400만 TEU를 증가시킬 수 있는 터미널 확장 공사를 시작함
-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한 컨테이너 물동량 급증에 대응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로테르담 항만 당국은 프린세스 아말리아 부두(Princess Amalia Harbour)에 2.4km의 부두와 호안 건설을 계약했으며, 이는 로테르담에 있는 마스플라크테II (Maasvlakte II) 터미널에 위치한 부두의 추가 개발의 시작을 의미함
- 컨테이너 터미널인 APM 터미널과 RWG는 이미 프린세스 아말리아 부두에서 각각 길이 1,500m와 1,700m의 부두를 운영하고 있음

20) Seatrade Maritime News(2021.02.24.)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rotterdam-embarks-quay-expansion-add-4m-teu-throughput-capacity>(2021.02.26.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뉴질랜드, 항만 발생 코로나19 우려에 해결책 제시²¹⁾

- 📌 뉴질랜드 선원과 항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는 최근 항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함
- 최근 뉴질랜드 타우랑가 항만에서 선박에 탑승한 승무원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바 있으며, 추가 전염은 없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뉴질랜드 해양노조 연합측은 해외 선박의 전염병 문제가 국경 보안에 있어 주요 위험 요소라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국 내 연안해운의 역할을 강화하자고 주장함
- 노조 측은 뉴질랜드 연안 화물 운송에 뉴질랜드 국적 선박과 선원들을 통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음
- 현행법상 국제선박들도 뉴질랜드 내 항만 간 연안운송이 가능하지만 국제선박들이 주요 항만에 기항하면서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기에 자국 선박 운송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노조는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새로운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항만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21) SCOOP Politics(2021.01.29.), <https://www.scoop.co.nz/stories/PO2101/S00113/covid-threat-in-new-zealand-ports-has-a-solution.htm>(2021.02.16. 검색)



6) 아프리카

① 모로코, 지중해 화물 경쟁에서 스페인 항만 추월²²⁾

☀ 최근 몇 년간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 화물 운송 시장은 스페인 항만이 압도적으로 점유해왔으나 최근 모로코 항만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음

- 지브롤터 해협 건너편에 위치한 모로코의 탕헤르 메드(Tanger Med)항은 '20년에 580만 TEU를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이상 화물처리량이 증가한 것으로 이 지역에서 화물을 가장 활발히 처리하는 컨테이너 항만으로 자리매김함
- 같은 기간 동안 스페인의 알헤시라스 항만은 오히려 0.4% 감소한 510만 TEU를 처리하여 탕헤르 메드항 보다 낮은 물동량 실적을 기록함
- 유럽 화주위원회에 따르면 모로코 항만의 활성화된 배후단지와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우수한 육상 운송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 모로코가 이 지역의 허브 항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현재 세계 최대 선사들인 머스크, CMA-CGM, 하파로이드 등이 모로코 항만을 기항하고 있음
- 10년 전 탕헤르 메드항은 주목받지 못하는 군소 항만이었으나 그동안 최고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계획, 법제도 등을 갖추어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탈바꿈하였음
-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최근 글로벌 무역 동향의 변화가 모로코 항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오는 상품의 수요 증가와 전자상거래 무역에 있어 탕헤르 메드항의 최신 터미널 인프라가 대형 운송업체들의 항만 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두 경쟁 항만



22) Bloomberg(2021.02.10.), <https://www.bloomberg.com/news/newsletters/2021-02-10/supply-chains-latest-morocco-tops-spain-rival-in-box-port-battle>(2021.02.16. 검색)

자료: Bloomberg(2021.02.10.), <https://www.bloomberg.com/news/newsletters/2021-02-10/supply-chains-latest-morocco-tops-spain-rival-in-box-port-battle>(2021.02.16.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²³⁾

① '21년 1월 수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3% 하락

수출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감소폭은 지난 4개월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20년 12월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 역시 감소하고 있음

원/달러 평균 환율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석탄 및 석유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1차 금속제품 등이 전월 대비 오르면서 총 수출물가지수가 증가함

- '21년 1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달러당 1,097.49원으로 전월 대비 0.2% 증가함
- 석탄 및 석유제품은 '20년 11월 이후 전월 대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역시 '20년 10월 이후 전월 대비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21년 1월 증가세로 전환됨

(단위: %)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구 분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20.10	'20.11	'20.12	'21.01(p)	'20.10	'20.11	'20.12	'21.01(p)
총 지수	-2.4	-0.5	0.6	1.8	-6.2	-4.6	-4.7	-2.3
농림수산물	-1.4	-0.9	-2.1	-0.5	-1.8	-0.7	-5.2	-5.7
공산품	-2.4	-0.5	0.6	1.9	-6.2	-4.6	-4.7	-2.2
섬유 및 가죽제품	-2.1	-1.7	-0.9	0.5	-4.9	-5.4	-7.1	-5.4
석탄 및 석유제품	-2.2	4.4	10.9	8.7	-36.8	-32.2	-27.5	-18.9
화학제품	0.1	1.8	2.4	1.3	-5.9	-1.3	1.1	1.6
제1차 금속제품	-1.8	1.3	3.3	3.6	-2.5	2.4	5.3	10.2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3.6	-1.4	-1.2	1.6	-1.5	-0.5	-2.2	0.0
전기장비	-2.2	-1.7	-1.0	0.4	-1.6	-2.2	-3.8	-3.4
기계 및 장비	-2.5	-2.0	-1.3	0.4	-3.6	-4.5	-6.2	-5.0
운송장비	-3.0	-2.2	-1.4	0.2	-3.0	-3.8	-5.2	-4.1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1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2021.02.16.),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2372&menuNo=200690&searchWrd=%EC%88%98%EC%B6%9C%EC%9E%85%EB%AC%BC%EA%B0%80&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2021.01.25. 검색\)](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2372&menuNo=200690&searchWrd=%EC%88%98%EC%B6%9C%EC%9E%85%EB%AC%BC%EA%B0%80&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2021.01.25. 검색))

23)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2021.01.14.),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2372&menuNo=200690&searchWrd=%EC%88%98%EC%B6%9C%EC%9E%85%EB%AC%BC%EA%B0%80&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2021.01.25. 검색\)](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2372&menuNo=200690&searchWrd=%EC%88%98%EC%B6%9C%EC%9E%85%EB%AC%BC%EA%B0%80&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2021.01.25. 검색))



② '21년 1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7% 하락

수출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등락률은 '20년 11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증가폭이 상승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 역시 지난 4개월 동안 둔화되고 있음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재료,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전월 대비 6.3%, 5.3% 증가하면서 총 수입물가지수가 증가함

- '20년 12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기준 배럴당 54.82달러로 전월 대비 10.0% 상승하였으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함('20년 11월 : 43.42→ '20년 12월 : 49.84)
- 자본재와 소비재를 포함하여 많은 품목에서 '21년 1월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됨

(단위: %)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구 분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20.10	'20.11	'20.12	'21.01(p)	'20.10	'20.11	'20.12	'21.01(p)
총 지수	-2.2	0.0	2.1	2.8	-11.2	-10.3	-9.9	-6.7
원재료	-1.9	3.9	7.1	6.3	-27.2	-24.4	-20.8	-14.9
농림수산물	0.3	-1.6	-1.0	3.1	1.3	-0.3	-2.4	1.8
광산품	-2.1	4.8	8.0	7.0	-31.1	-27.9	-24.0	-17.7
중간재	-2.4	-0.9	1.1	2.1	-6.1	-5.3	-5.7	-3.0
석탄 및 석유제품	-2.8	0.1	10.5	5.3	-24.9	-23.2	-19.9	-17.6
화학제품	-1.7	-0.8	0.0	1.6	-8.8	-7.7	-8.5	-5.7
제1차 금속제품	-1.7	0.0	2.7	3.5	-0.1	2.1	3.8	7.4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4.1	-1.5	-1.3	0.7	-2.8	-3.1	-4.6	-2.5
전기장비	-2.9	-2.4	-1.8	0.5	-6.2	-6.4	-8.7	-5.8
기계 및 장비	-2.8	-2.0	-0.8	0.4	-2.0	-2.4	-4.0	-3.0
자본재	-2.6	-1.9	-0.7	0.3	-0.3	-0.7	-2.4	-1.4
소비재	-1.6	-1.6	-0.8	0.7	-4.0	-5.4	-6.7	-5.8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1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2021.02.16.),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lid=10062934&menuNo=200690&pageIndex=1\(2021.02.17. 검색\)](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lid=10062934&menuNo=200690&pageIndex=1(2021.02.17. 검색))



2) 양곡

① 2020/2021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1.6% 증가 전망, 소비량과 교역량도 각각 1.0~1.8%, 3.4~5.2% 증가 예상²⁴⁾

-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 기관 모두 전년 대비 2020/21년 곡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2020/21년 시즌 세계 곡물 생산량을 USDA는 27억 1,400만 톤(1.6%)으로, IGC는 27억 1,300만 톤(1.1%), FAO는 27억 4,200만 톤(1.3%)으로 각각 전망함
- 공급량 대비 수요량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USDA는 곡물 소비량을 27억 1,000만 톤(1.8%)으로, IGC는 27억 1,800만 톤(1.0%), FAO는 27억 4,200만 톤(1.9%)으로 예측함
- 이에 세 기관 모두 교역량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USDA는 곡물 교역량을 4억 6,400만 톤(5.2%)으로, IGC는 4억 5,400만 톤(3.9%), FAO는 4억 5,500만 톤(3.4%)으로 예측함

24) 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 격월간지, http://www.kreire.kr:18181/board/quarter/view/wr_id/5769/page/1 (2021.02.26. 검색)

3) 시멘트

① '20년 건설수주 전년 대비 16.9% 증가한 194조 1천억 원, 역대 최대 실적²⁵⁾

- '20년 건설수주는 민간과 공공 모두 증가해 전년 대비 16.9%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인 194조 1천억 원을 기록함
- '15년 기준 불변금액 또한 175조 5천억 원으로 지난 '07년의 165조 9천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경상금액 뿐만 아니라 불변금액 상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함
- 특히 민간 건축수주가 매우 양호해 20.4% 증가한 142조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함
- 토목수주는 전년보다 28.1% 감소한 15조 4천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주택수주는 46.5%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인 83조 원을 기록함
- 비주택 건축수주도 전년 대비 9.2%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인 43조 6천억 원 기록함
- 공공수주 실적도 양호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8.4% 증가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52조 1천억 원을 기록함
- 이 중 토목수주는 전년보다 4.3% 증가하여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9조 3천억 원을 기록하였고, 주택수주는 11.8% 증가하였으며, 역대 최대치인 9조 8천억 원을 기록함
- 비주택 건축수주도 전년 대비 약 15.9%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인 13조 원을 기록함

2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794호(2021.02.22.), <http://www.cerik.re.kr/report/prospect/detail/2467>(2021.02.22. 검색)



4) 모래

① '21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감소세 기록²⁶⁾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년 1월 CBSI가 전월 대비 3.4p 하락한 81.2를 기록함

- CBSI는 '20년 12월에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0.7p 하락하였고, '21년 1월에도 3.4p 하락하며 지수가 2개월 연속 감소함
-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움직임으로 대형기업 BSI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거나, 오히려 계절적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통상 1월에는 공사가 감소해 지수가 전월 대비 5~10p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계절적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하락 폭이 크지 않고, 지수 자체도 80선으로 예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 밖에도 수주가 전월보다 감소하고 폭설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BSI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전체 지수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한편 '21년 2월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7.1p 상승한 98.3으로 전망됨

- 연구원에 따르면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5p 이상 높은데, 그만큼 2월에는 침체된 건설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26)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1.02.02), [http://www.cerik.re.kr/report/prospect/detail/2467\(2021.02.15. 검색\)](http://www.cerik.re.kr/report/prospect/detail/2467(2021.02.15. 검색))

5) 석탄

① 중국, '20년 기준 세계 신규 석탄발전용량 압도²⁷⁾

📌 '20년 중국은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 및 추가 건설을 승인함

- '20년 중국은 중국 외 세계 신규 석탄발전용량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38.4G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증설하였으며, 36.9GW 규모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함
- 이러한 정책 추진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중공업 및 건설업 등 탄소집약적 산업에 기반한 경기부양책 추진에 기인함
- 따라서 향후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7)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2.05), [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2.22. 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2.22. 검색))



6) 철광석

① 철광석 가격, 발레사의 '21년 생산량 전망 발표 이후 급등²⁸⁾

- 발레(Vale)사의 '21년 생산량 전망 발표 이후인 '20년 2월 4일 62% Fe 분광의 중국 칭다오항 철광석 가격은 톤당 158.03달러로 전월 대비 3.52% 급등함
- 발레사는 '20년 4분기 철광석 생산량이 8,450만 톤으로 직전 분기대비 5% 감소했으며 '21년 철광석 생산량이 3억 3,500만 톤에 그칠 것으로 발표함
- 동 사는 세계 철광석 생산업체 1위 탈환을 위해 생산용량 확대를 추진 중이나 법적 분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조업 차질 및 댐 안전허가 취득 지연 등에 따른 난관에 봉착한 상황임
- 한편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사는 향후 3년간 철광석 가격이 톤당 165달러 이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반면 ANZ(Australia & Zealand Banking Group)사는 '21년 말 톤당 1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28)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2.09.),
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2.15. 검색)

7) 기타광석

① 포스트코로나의 경기회복 및 미달러 약세, 중국의 경기개선효과로 전반적인 자원가격 상승세²⁹⁾

- 미달러 약세 및 중국의 경기지표 개선에 따른 '동'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21년 동 공급 부족 전망
- 미국 바이든 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과 더불어 중국의 경기개선 및 미달러 약세에 따라 전기동 가격상승압력 발생
- 또한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의 확대와 코로나 백신 상용화에 따른 세계 경기 회복 전망으로 전기동 소비확대가 예상됨
- 이에 1월 전기동 평균 가격은 톤당 7,971달러로 전월 대비 2.8% 상승하였으며, '13년 2월 이후 약 7년 11개월 내 최고 가격을 경신함
- 세계 경기의 낙관적 전망 및 전기차 시장 확대 기조로 니켈 가격 상승세
- 미국의 추가경기 부양책 및 미달러 약세, 전기차 시장의 신장세 전망 등에 힘입어 1월 니켈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냄
- 1월 평균 니켈가격은 전월 대비 6.2% 상승한 톤당 17,848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월 2주차 기준 톤당 18,000달러를 돌파함
- 특히 공급측면에서 필리핀의 환경규제 강화, 뉴칼레도니아의 정치적 소요사태 등으로 공급차질 우려가 심화되면서 니켈 가격의 상승압력을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됨

29)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2.18.),
https://www.kores.net/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2021.02.24. 검색)

다만 아연의 경우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에도 코로나 재확산 및 경기지표 부진여파로 가격 하락

-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가 높아졌으나, 유럽과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및 경기지표 부진 여파 등 공급과잉적 펀더멘탈 지속 및 재고량 증가로 인해 비철금속 하방압력이 발생함
- 이에 1월 평균 아연 가격은 톤당 2,708달러로 전월 대비 2.7% 하락함

8) 목재

① 산림청, '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발표³⁰⁾

산림청은 '21년 업무계획 비전을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함

- '2050 탄소 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나무 4,800만 그루를 심어 72만 5천 톤의 탄소를 감축할 예정이며, 기후위기 대비 · 스마트 기술 기반의 안정적인 목재 공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확대, 목재 사용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임
- '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 강화로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재난심리회복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계획임
- 한국형 산림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계절 안전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K-산불, 산사태방지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

30) 산림청 보도자료(2021.02.08.),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55407&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3&searchTitle=title&searchConte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2.17.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55407&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3&searchTitle=title&searchConte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2.17. 검색))

2021 산림청 업무보고



자료: 산림청 보도자료(2021.02.08.),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55407&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3&searchTitle=title&searchConte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2.17.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55407&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3&searchTitle=title&searchConte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2.17. 검색))

9) 고철

① 글로벌 스크랩시장 하락세 반등³¹⁾

- 중국, 터키시장에서 2주간의 하락세가 멈추고 철스크랩 가격지표가 소폭 상승함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스크랩 회수, 출하 차질로 수급우려가 발생하였으며 봄 성수기 증산을 앞둔 지역 철강업체들이 재고비축 움직임을 강화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글로벌 스크랩가격 풍향계인 터키 수입시장도 하락세를 멈추었으며 특히 터키 철강사들의 마진스프레드(철근 수출 가격과 철스크랩 수입 가격 차이)도 평소보다 높은 수준임
 - 동행지표인 철광석 스팟 가격도 톤당 165달러 수준으로 6주째 10년 내 최고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겨울난방 수요 증가와 호주 기상악화로 인한 수급 우려로 원료탄 가격도 급등세에 있음
 - 철광석과 원료탄 스팟 가격에 가중치를 적용한 용선(고로 쇳물) 원가 추정치는 톤당 375달러 수준으로 최근 1개월 사이에 14%나 상승하였음

31) 스크랩워치(2021.01.28.), <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81>(2021.02.10. 검색)

10) 철재

① '20년 연간 국내 조강생산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14년 이후 가장 낮은 6,709만 톤을 기록함³²⁾

- '20년 12월 국내 조강생산량은 592만 1천 톤으로 전년 대비 0.7% 소폭 증가했으며, 12월 기준 누적 조강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6,709만 톤을 기록함
 - 열간압연강재의 경우 내수회복으로 전년 대비 생산(+2.1%)과 출하(+4.2%) 모두 증가함, 반면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각각 4.0%, 3.8% 감소하였음
 - 도금강재는 자동차, 가전 등 내수 수요 증가로 12월 생산량과 출하량은 각각 전년 대비 0.1%, 2.4% 상승하였지만 누적 생산량(-9.2%)과 누적 출하량(-7.0%)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함
 - 냉연강재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품목으로 누적 생산량(-9.4%)과 출하량(-8.6%)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32) 한국 철강협회 철강전문지 「철강보」 1월호, <http://www.koam.or.kr/data/industryView.do#>(2021.02.26. 검색)



11) 자동차

① '20년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 세계 9위 기록³³⁾

자동차산업협회는 '2020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 보고서를 발표함

- 국내 자동차 시장의 차종별, 연료별, 구입자 연령별 수요 특징을 물량과 금액 기준으로 분석함

'20년,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자동차 판매가 14% 감소하면서 3년 연속 시장규모가 축소됨

- 세계 10대 자동차 내수시장(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프랑스, 브라질, 영국, 한국, 러시아)의 규모는 세계 자동차 판매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20년 내수시장은 중국을 제외한 인도 및 브라질 등의 신흥시장이 20%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시장이 10%대 감소함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자동차 내수시장 중 유일하게 내수 판매가 증가하면서 시장 규모가 세계 9위('19년 12위)로 상승함

-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내수 촉진 정책, 신차 출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내수 판매 금액은 '19년 59조 원에서 '20년 68조 원으로 15.9% 증가, 차량당 평균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9.2% 상승('18년 3,140만 원 → '19년 3,290만 원 → '20년 3,590만 원)하는 등 고급화 추세가 지속됨
- 수입차 판매량은 '20년 처음으로 30만 대를 넘어서면서 시장 점유율은 15.9%를 기록('19년 15.3%)했으며,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내수시장 점유율은 28.1%에 달함
- 전기동력차(HEV, EV, FCEV)는 '20년 22만 5천 대가 판매되면서 신규등록 전기동력차 비중이 11.8%를 기록('19년 8.0%)함

② '20년 한국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기록³⁴⁾

20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코로나19 여파로 15.5% 감소했으며,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모두 생산량이 감소함

- 세계 자동차 생산 1~4위 국가인 중국(-2.0%), 미국(-19.0%), 일본(-16.7%), 독일(-24.7%)은 순위 변동이 없었으며, 우리나라는 11.2%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어 인도(5위→6위, -24.9%)와 멕시코(6위→7위, -21.2%)를 제치고 5위를 기록함
- 스페인(8위, -19.6%), 브라질(9위, -31.6%)에 이어 러시아(-15.7%)가 10위에 진입했으며 '19년 10위 국가였던 프랑스가 태국(11위), 캐나다(12위)에 이어 13위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 5위 탈환은 경쟁국 생산차질에 따른 것이며 업계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과 노사협력, 정부의 규제개혁과 경쟁력 지원 정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함

33)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2.05.),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476&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02.17. 검색)

34)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2.09.),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477&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02.17. 검색)

12) 잡화

① '20년 12월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한 201억 6,200만 달러, 수입 금액은 동 기간 17.6% 증가한 118억 2,600만 달러 기록³⁵⁾

☀ '20년 누적 기계 산업의 수출금액은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전년 대비 6.7% 감소한 1,897억 2,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금액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7.7% 증가한 1,166억 5,700만 달러임

☀ '20년 누적 기준 기계 산업 전 부문에서 수출이 부진했으나 전기기계업 부문의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366억 1,300만 달러를 기록함

(단위: 백만 달러, %)

35)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2월호(2021.02.10.), <http://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 (2021.02.26. 검색)

'20년 12월 기계산업 업종별 품목동향

구분	2020년 12월				2020년 1~12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산업 전체	20,162	13.6	11,826	17.6	189,721	-6.7	116,657	7.7
일반기계업	4,591	-6.5	3,705	30.7	47,661	-8.9	37,256	11.1
전기기계업	4,108	26.5	2,023	16.3	36,613	3.5	21,185	3.8
정밀기계업	1,711	13.3	2,612	24.4	16,659	0.8	24,338	15.7
수송기계업	8,818	21.8	2,873	1.5	79,022	-11.2	27,670	4.1
조선	2,698	121.0	198	56.0	18,731	-0.8	113.9	113.9
금속제품업	934	0.6	612	11.3	9,766	-3.7	6,208	-7.8

자료: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2월호(2021.02.10.), <http://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1.02.26. 검색),
항만수요예측센터 재작성

13) 유류·화학공업생산물

① 대한석유협회,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에 관한 해외보고서 발표³⁶⁾

☀ 보고서에서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석유수요와 천연가스의 40년까지 장기 수요 전망치와 잠재적 불확실성 요인을 발표함

- 세계 석유수요는 '30년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송용 수요가 더 이상 수요 견인 요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함
- 주요 석유 수요 감축 요인들은 차량 이용 감소, 여행 및 출장 수요 위축, 경제성장 부진, 차량 판매 부진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수요 확대 요인으로는 SUV 차량 판매 가속화, 배출량 감축 규제 도입 연기, 저유가 상황 지속 등이 될 것으로 전망함

36) 대한석유협회 조사보고서(2021.01.14.), [http://www.petroileum.or.kr/ko/material/material5.php?option=&keyword=&category=&id=2065&page=1&mode=read&type=\(2020.02.10. 검색\)](http://www.petroileum.or.kr/ko/material/material5.php?option=&keyword=&category=&id=2065&page=1&mode=read&type=(2020.02.10. 검색))



IEA 세계 석유 수요 전망

(단위: 백만 b/d)

구분	석유류(liquids) 수요			Share(%)			연평균증감율(%)		
	2019	2025	2030	2040	2019	2030	2040	'19~'30	'19~'40
북미	22.9	22.1	21.7	19.3	23	21	19	-0.5	-0.8
└ 미국	18.5	17.9	17.5	15.2	19	17	15	-0.5	-0.9
중남미	5.4	5.6	5.7	6.2	6	6	6	0.5	0.6
유럽	13.3	11.9	10.9	8.6	14	11	8	-1.8	-2.0
아프리카	4.1	4.7	5.4	7.0	4	5	7	2.6	2.6
중동	7.5	7.9	8.5	10.0	8	8	10	1.2	1.4
유라시아	3.9	4.0	4.2	4.2	4	4	4	0.7	0.5
아시아 태평양	32.5	35.0	37.1	37.9	33	36	36	1.2	0.7
└ 중국	13.2	14.4	15.1	14.1	14	15	13	1.2	0.3
국제병커링	8.4	8.8	9.7	10.9	9	9	10	1.3	1.3
석유(oil)	97.9	99.9	103.2	104.1	100	100	100	0.5	0.3
도로,항공&해운	54.9	56.2	58.6	58.8	56	57	56	0.6	0.3
산업&석유화학	18.5	20.1	21.3	23.0	19	21	22	1.3	1.0
세계바이오연료	2.1	2.8	3.6	5.1	2	3	5	5.2	4.4
석유류(liquids) (b/d 등 포함)	100.0	102.8	106.8	109.2	100	100	100	0.6	0.4

자료: 대한석유협회 조사보고서(2021.01.14.), [http://www.petroil.or.kr/ko/material/material5.php?option=&keyword=&category=&id=2065&page=1&mode=read&b_type=\(2020.02.10. 검색\)](http://www.petroil.or.kr/ko/material/material5.php?option=&keyword=&category=&id=2065&page=1&mode=read&b_type=(2020.02.10. 검색))

☀ 천연가스 수요는 세계적으로 '40년까지 지속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요 증가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발표함

- 미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빌딩 내 가스 사용 제한과 빌딩 에너지 효율 개선, 석유 생산량 회복 시기 등에 따라 수요 변동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EU의 천연가스 수요는 유럽 그린딜 이행, 저탄소 가스 보급 확대, 재택근무 비율 증가, 화석연료 및 원자력 단계적 퇴출 등이 주요 변화 요인으로 나타남
- 중국과 인도의 천연가스 수요는 전력 수요 둔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산 둔화, LNG 트럭 보급, 청정 겨울난방 계획 확대 등이 주요 장기 변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IEA 천연가스 수요 전망

(단위: 백만 b/d)

구분	기공표 정책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 : STEPS)								
	천연가스(Natural gas) 수요				점유율(%)			연평균증감율(%)	
	2019	2025	2030	2040	2019	2030	2040	'19~'30	'19~'40
북미	1,090	1,150	1,157	1,163	27	25	22	0.5	0.3
└ 미국	881	922	920	901	22	20	17	0.4	0.1
중남미	159	159	175	233	4	4	4	0.8	1.8
유럽	604	598	570	536	15	12	10	-0.5	-0.6
└ EU	406	397	373	329	10	8	6	-0.8	-1.0
아프리카	169	180	201	285	4	4	5	1.6	2.5
중동	559	598	663	780	14	14	15	1.6	1.6
유라시아	609	621	633	664	15	14	13	0.4	0.4
└ 러시아	492	499	501	507	12	11	10	0.2	0.1
아시아 태평양	837	1,046	1,198	1,521	21	26	29	3.3	2.9
└ 중국	307	425	500	637	8	11	12	4.5	3.5
└ 인도	63	100	131	201	2	3	4	6.8	5.6
국제병커링	0	8	17	39	0	0	1	n.a.	n.a.
세계	4,026	4,358	4,613	5,221	100	100	100	1.2	1.2

자료: 대한석유협회 조사보고서(2021.01.14.), [http://www.petroileum.or.kr/ko/material/material5.php?option=&keyword=&category=&id=2065&page=1&mode=read&b_type=\(2020.02.10. 검색\)](http://www.petroileum.or.kr/ko/material/material5.php?option=&keyword=&category=&id=2065&page=1&mode=read&b_type=(2020.02.10. 검색))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하태영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경한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천민수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0. 2. 26

편집 겸 발행인 장영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